상월결사 2주년 화보

희망이 필요한 시절이다. 하지만 희망을 위해 움직이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어느 때보다 희망이 필요한 시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결사'라고 부른다. 어느 시절에서도 진부하지 않은 발원, 결사. 2019년 11월 4일, 천막법당 '상월선원'에 모인 대중은 상월선원이 붓다가야가 되고 천막법당이 보리수가 될 것을 서원했다. 수행정진을 통해 한국불교의 중흥을 서원하고, 고행 끝에 오는 깨달음과 희열로 모든 대중의 아픔과 함께하겠다는 결사는 오늘로 2주년을 맞는다. 결사의 외호대중으로 오늘을 맞으며 결사의 흔적을 모아본다. 〈편집자 주〉



위례천막결사 '상월선원' 정진 대중과 외호 대중은 2019년 11월 4일 위례종교용지에서 선원 법당 봉불식과 현판제막식을 봉행했다.



2021년 10월 18일 통도사에서 열린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에서 진오 스님이 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순간 순간은 고행이지만



2020년 2월 7일 천막결사 후 무문관 정진동을 나온 정진대중 스님들이 대중과 삼천대천세계에 감사와 발원의 삼배를 올리고 있다.



자승 스님이 2020년 2월 7일 천막결사 후 무문관을 나오고 있다.



2021년 7월 6일 상월선원 신축불사 착공식서 총무원장 원행 스님 등이 시삽하고 있다.



2021년 10월 1일 송광사에서 열린 삼보사찰 천리순례 입재식에 앞서 대중은 국사전 및 보조국사감로탑 참배를 진행했다.


2021년 10월 9일 해인사에 도착한 순례단은 팔만대장경을 친견했다.


화엄사가 2021년 10월 3일 개최한 화엄문화축제 '화엄음악제'에 삼보사찰 천리순례단이 함께했다.

2년의 세월은 환희 그 자체



상월결사는 2020년 10월 7일부터 26일까지 상월선원 만행결사 자비순례를 진행했다. 회주 자승 스님을 필두로 결사대중이 첫날 일정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상월결사는 2020년 10월 15일 문경STX리조트 '상월결사의 시대적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대중공사를 개최했다.



순례단은 2021년 10월 18일 통도사에서 열린 삼보사찰 천리순례 회향식에 앞서 금강계단을 참배했다.


순례회향지에서 순례단이 새롭게 발원하고 있다.


2021년 10월 17일 불보종찰 통도사 입성을 하루 앞두고 천리순례 자자회가 울주 상북면에서 열렸다.



상월결사 정신 곳곳에서

불법 홍포 새 모델 '수미산원정대'

불교중흥을 위한 상월결사 정신은 우리 곳곳에서 발현되고 있다. 2021년 2월 상월결사 회주 자승 스님의 불자배가운동의 필요성 강조에 따라 불연맺기 프로그램으로 발족된 '수미산원정대'는 불법 홍포의 새 모델로 자리잡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수미산원정대는, '상월결사'라는 수행 실천을 전법포교와 신행 운동으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되고 있다.

2021년 5월 27일 입학한 1기에는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 방송인 김미화, 양수경, 유정주 국회의원, 김연호 국제변호사, 금나나 동국대 교수, 배우 진지희 씨 등 73명의 각계 인사들이 이름을 올렸고, 10월 28일 47명이 졸업했다.

이들은 5월 22일까지 매주 목요일 마다 모여 12강의 불교입문교육을 통해 부처님의 일생과 수행법, 사찰과 불교문화, 불교문학의 세계, 불교사와 경전, 불교와 과학 등을 배우고 박범훈 불교음악원장의 지도로 찬불가도 익혔다. 또 자원봉사로 배운 바를 실천하고, 이와 함께 교육 기간에 자원봉사와 성지순례, 봉은사에서 진행되는 2박 3일 간의 상월선원 템플스테이에 참가하며 실참수행했다.

1기생 전체 73명 중 가톨릭 8명, 개신교 7명, 무교 34명으로 전체인원 중 비불자가 60% 이상으로 새롭게 불교와 인연을 맺는 계기를 만들었다.

2기 수미산원정대로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을 비롯해, 이원욱 국회정각회장, 이광순 바둑연맹 회장, 조시영 대창 회장, 김진문 신성약품 회장 등 118명의 사회각계 인사들이 참여했으며, 마찬가지로 불교입문교육을 거쳐 불자로서의 활발한 활동이 기대된다.

수미산원정대는 1기 졸업생을 바탕으로 동문회도 구성돼있다. 동문회장 육현표 삼성경제연구소 사장은 "포교와 성찰, 실천이라는 원력 하에 불교중흥을 위해 대중이 모두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상월결사 정신 곳곳에서

청년 포교의 희망 '상월청년회'

한국불교의 당면 과제는 무엇일까, 탈종교화와 신도 고령화 등의 이면에는 청년포교라는 과제가 떠오른다. 상월청년회는 이러한 불교계의 오랜 과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희망을 선사하고 있다.

상월청년회는 동국대 재학 중인 20대 대학생들을 비롯해 2030세대의 다양한 직군 청년들로 구성된 불자조직이다. 상월청년회는 2021년 3월 초부터 창립을 위해 3주간 모집기간을 거쳤다. 생각보다 반응은 뜨거웠다. 동국대에 재학 중인 20대 대학(원)생부터 초등학교 교사, 방송PD, 회사원 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다.

이들이 모인 연유는 바로 '앉은 불교에서 움직이는 불교로, 침체된 불교에서 활기찬 불교로, 소극적인 불교에서 적극적인 불교로 전환해야 한다'는 상월결사 정신에 공감했기 때문이다.

상월청년회는 첫째, 셋째 토요일마다 정기모임을 갖는다. 묵언 · 걷기 명상, 1박2일 새벽기도를 비롯해 자원봉사 등도 함께 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찾아가는 불교의 상월정신을 실천하기 위해 다양한 불교문화교육과 봉사 등으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상월청년회에서 가장 눈여겨 볼 것은 동국대 2019학번 스님들로 구성된 승가결사체 '칠불회' 스님들이 지도에 나섰다는 것이다.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현장에 상주하며 정진하는 스님들을 뒷바라지한 수국사 효연 스님이 지도법사로 세팅, 혜력, 유정 스님 등 청년들과 소통하는 젊은 스님 13명이 함께 청년들을 지도하며 도반으로 탁마하고 있다.

10월 23일 수국사에서는 1기 수료식 및 2기 입재식도 열렸다. 2기 상월청년회에는 33명이 새로 입학해 1기 26명과 함께 활동할 예정이다. 불교에 관심이 없는 젊은 세대들에게 부처님 가르침을 안내하겠다는 원력. 이러한 원력을 바탕으로 한 상월청년회의 힘찬 활동에 불교계가 주목하고 있다. 노덕현 기자